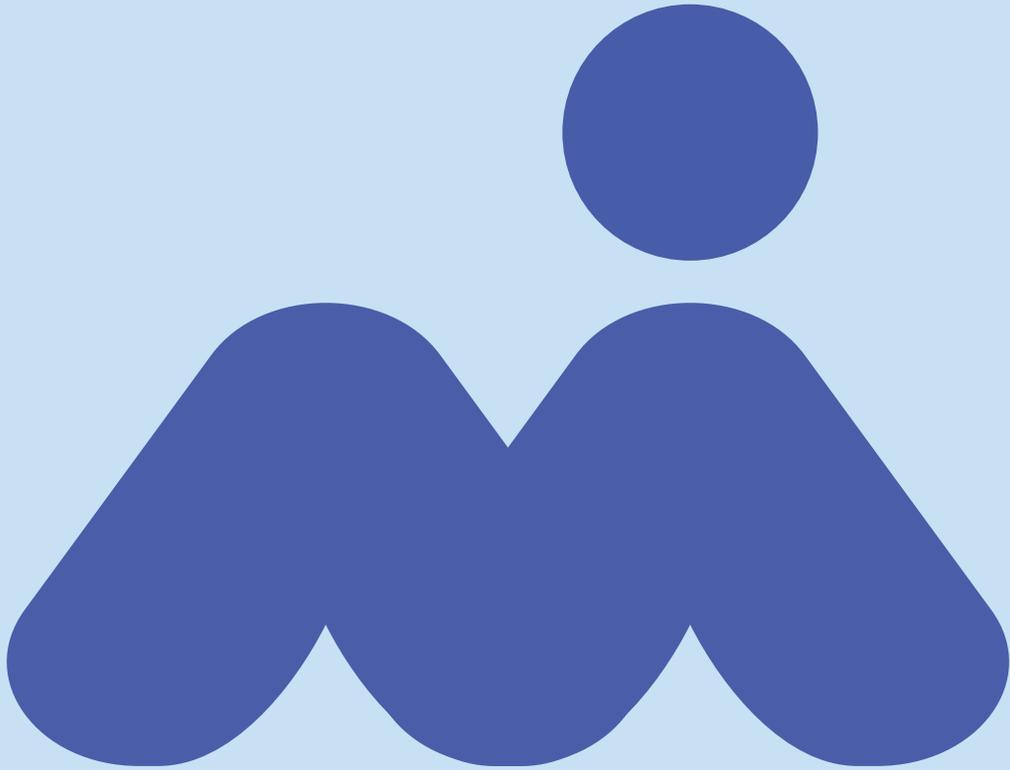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1



전라남도  
진도 상·하조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조도대교에서 바라본 상조도

### 물목

#장죽수도 #물목 #진도

‘물살이 거칠기로 소문난 진도대교 울돌목이 사돈 멧자고 하니 #장죽수도가 거절했다고 하네’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가 #물목이다. 바다 사람들은 사이의 좁은 바다나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는 섬 사이도 물목이라 한다. ‘수도水道’, ‘해협海峽’, ‘량梁’, ‘도渡’, ‘도’ 등도 비슷한 의미로 표현한다.

#진도 팽목과 조도 사이 바다를 #장죽수도(長竹水道)라고 한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거대한 물줄기가 만나 거칠게 흐르며 요동친다. 조도 사람들이 진도가 아니라 목포에 생활권이 있는 것도 이 거센 물살이 있는 장죽수와 울돌목을 건너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거다. 장죽수도는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다. 하조도 등 대 주변의 항로는 목포, 제주도, 인천으로 향하는 분기점으로 여객선, 화물선과 어선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해풍속, 섬 풍경

###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역사 문헌 속 상·하조도

07 상·하조도 특산물, 해풍속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여는 섬, 조도면

###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상·하조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바다생물 인문학: 툇(鹿尾菜, 土衣菜)

###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진도군 박길림 문화관광해설사

12 하조도 신전마을 살림꾼 문석문 이장

###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4 상·하조도 투어 가이드

16 조도면소재지에 숨은 이색 점빵 마실

18 상·하조도 섬 여행 명소

### NEWS&ISSUE :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0 2월 섬 주요 소식

### 참고문헌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정약전, 『자산어보(茲山魚譜)』, 1814

진도문화원, 『새때같은 조도의 섬들-조도면지-』, 2010.

디지털동작문화대전(<https://url.kr/umng4z>).

### 도움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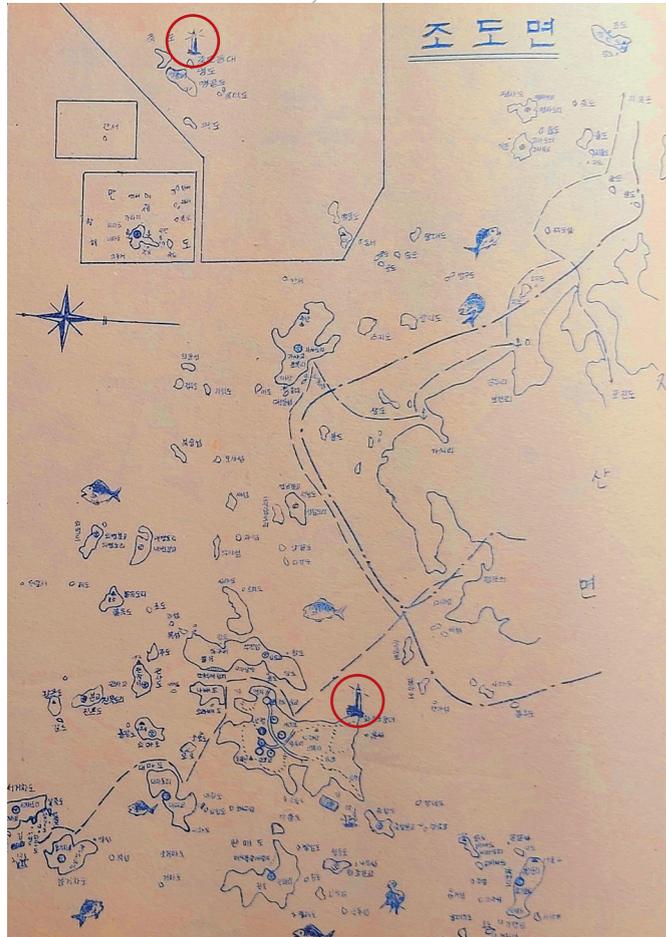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진도군 박길림 문화관광해설사

하조도 신전마을 문석문 이장

# PHOTO STORY

호남약도, 해풍속, 섬 풍경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년)

## 진도 조도면

60여 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도면'은 어땠을까? 1965년 전라남도청에서 발간한 『호남약도(湖南略圖)』에 소개된 진도군 조도면은 동쪽으로 지산면과 이웃하는 가운데 상·하조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섬들이 그려져 있다. 특히 상·하조도가 중심부에 놓여 있는데, 이는 많은 섬들을 대표하는 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자료에는 섬의 위치나 크기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바다생물, 건축물, 주산물 등 지역성이 반영된 고유 정보가 언급되었다. 하조도와 동·서거차도에는 김과 해조류, 양덕도, 외병도, 관매도, 대마도 등지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당시 이들 섬 지역이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재미있는 그림도 발견할 수 있는데, 조도와 죽도에 설치된 등대다. 등대를 소개하면서 유난히 빛이 반짝이는 효과를 반영하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등대가 사람들에게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시설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도 인식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섬에 스민 바다. '해풍속'으로 다시 태어나다

청정한 공기로 재운 발이 이른 봄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상조도 너른 들판에서 바람 따라 하늘거리던 바닷그물. 그건 해풍속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포근한 이불처럼 보였다. 섬 농부들이 밭을 대하는 온기를 만난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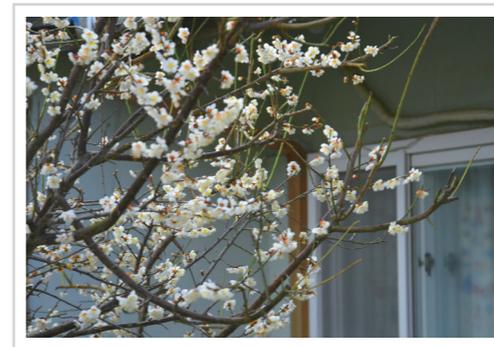
#진도군 #조도면 #상·하조도 #특산물 #해풍속 #바닷그물



조도면소재지 전경



한국 토종고래 '상괘이'를 위한 섬. 조도군도



일찍 핀 매화꽃이 반기는 창유마을 골목길을 따라



조기파시로 유명했던 상조도 섬등포의 추억

#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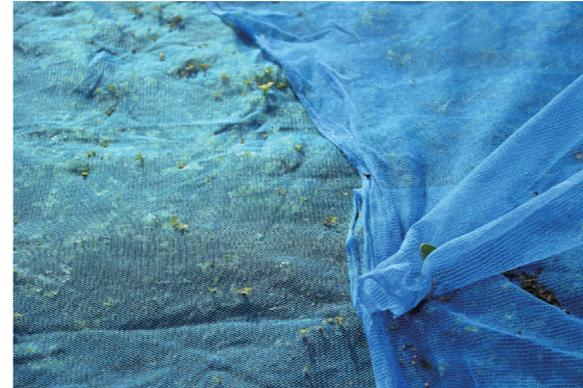


도리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조도군도 / 바실 헐(Basil Hall), 『한국서해안항해기』

## 역사 문헌 속 상·하조도

상·하조도(上·下鳥島)는 진도군에 속한 큰 섬으로, 행정구역상 170여 개의 유·무인섬을 대표하는 곳이다. 조도(鳥島)라는 지명을 풀이하면 '새섬'인데, 다도해에 수 놓인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한데 뭉쳐 다니는 새 떼와 같아 불리게 되었다. 옛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무렵 일본 승려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기』에서 '초도(草島)로 소개되었다. 이밖에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여지지』(1656), 『여지도서』(1759) 등에서 조도군도에 속한 맹골도, 독거도, 대마도 등이 언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왜구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한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이 시행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서양인들이 교역이나 탐험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섬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1816년 영국에서 청나라로 파견한 사절단을 수행한 영국 해군장교 바실 헐(Basil Hall)이 쓴 『한국서해안항해기』(1818)에서 국내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섬에 관한 소개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조도도 포함되는데, 그는 같은 해 9월 섬에 상륙하여 오늘날 도리산 전망대가 있는 상조도 산 정상에 올라 수많은 섬을 바라보고는 '세상의 극치'라고 표현했다. 이 책은 2003년 '10일간의 조선항해기'(삼과 꿈, 윤킨이 김석중)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상·하조도 해풍속

## 상·하조도 특산물, 해풍속

하조도에서 조도대교 건너 상조도에 이르면 마을과 인접한 들녘과 밭에서 신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푸른색 그물망이다. 조도에서는 바다와 더불어 육지 농사도 활발히 이뤄지는데, 바로 '해풍속'이다. 일 년간 키워 판매한 전체 농가 수익이 백억 원을 상회한다. 그래서 섬에서 나는 재배 작물 가운데서도 으뜸이자 효자 상품이다.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봄 무렵이며, 섬 주민들은 겨울에 잡풀이 나지 않도록 하고, 추운 겨울바람에 냉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고 속밭에 그물을 엮는다. 세상이 좋아져 수작업 대신 기계로 속 채취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풍속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공 시설도 상조도 맹성마을에 조성됐다. 조도 해풍속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속만의 독특한 향인 치네올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여는 섬, 조도면

조도면은 '체육인의 섬'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시작된 조도면민 체육대회는 한국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해서 개최된 특별한 지역 축제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축구, 배구, 윷놀이, 미니 마라톤, 씨름, 줄다리기 등이다. 체육대회가 절정에 다다르면 마을 어른들이 준비한 조도 닻배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 노래는 1930년대 조도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조기잡이를 하면서 부른 것으로, 민속문화를 전승해온 주민들에 의해 흥겨운 분위기 연출을 위한 로컬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체육 분야를 중시했던 지역 문화 덕분이었을까? 진도군 체육대회가 열리면 조도면이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아울러 조도면에서만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세 사람이나 배출했는데, 여자 하키부 금메달리스트인 박기주 선수를 비롯하여 남자 배구 부문 박서광 선수 등이다. 특히 유토마을에서 1942년 태어나 배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박서광 선수는 귀향 후 조도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로 활동했다. 예전에 섬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조도에 학생들이 공을 차면 바다로 빠져버리니까 손으로만 가지고 노는 운동을 잘하는구나"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섬 여행객이나 진도군 주민 방문이 이어지면서 조도면이 이렇게 멋진 섬이었다는 점을 느껴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도면민체육대회

#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상·하조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바다생물 인문학

### 툇(鹿尾菜, 土衣菜)

‘툇’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갈조류로 바닷말의 일종이다. 자라는 모양이 마치 사슴 꼬리와 비슷해서 녹미채(鹿尾菜)로 불렸다. 1814년 손암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토의채(土衣菜)로 소개되었는데, ‘잎이 인동 꽃봉오리와 비슷해 가늘고 끝으로 갈수록 도통하지만, 그 끝은 다시 뾰족하며 잎 속이 비어있다. 맛이 담백하며 개운해서 데쳐 먹음만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보릿고개와 같은 기근이 들면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서 구황 식품으로 많이 먹었다. 수확시기는 보통 3월부터 5월이며, 금어기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 이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다.

한국보다 일본에서 소비량이 많아 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95%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내 툇 가격은 다른 해조류 반찬거리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급식 식단에 주당 2회씩 툇 나물이 나올 만큼 즐겨 찾는 바다 식품이다. 툇은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이오딘, 칼슘, 철분 등 여러 무기염류가 풍부해 빈혈에 좋다.



### 해산물

도다리	미역	툇	뜸부기	멸치	삼치	전복
4~6월	5~7월	5~7월	6~8월	6~11월	9~11월	11~12월

### 밭작물

숙	보리	고구마	쌀	배추	호박	대파
3~4월	3~8월	9~10월	9~10월	10~11월	10~11월	12~1월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진도군 박길림 문화해설사



### Q1 상·하조도를 처음 찾는 관광객에게?

**A1** 먼저 상·하조도는 주변에 좋은 섬이 많아 부각되지 못했지만, 섬 여행 하기에 더없이 좋다. 조도에는 관광버스가 한 대 있다. 예전에 주민이 관광업에 뛰어들어 소형 버스를 운행하면서 항상 가이드를 했는데, 지금은 예약 손님 위주로 운행한다. 일반 여행객이 여행 문의차 연락 해오기도 하는데, 차를 가져오면 좋다고 말씀드린다. 숙박업소는 펜션이나 민박이 많은데, 우선 조도등대로 가는 길에 만나는 민박집은 2층 구조로 7, 8명 정도 잘 수 있다. 다음으로 어류포에 여관, 민박집, 창리에는 여관이 두 곳 있다. 신전마을에는 한옥 민박단지가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민박 지원사업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머무를 수 있다.

### Q2 상·하조도에서 추천하는 섬 여행지는?

**A2** 조도에서 자랑하는 대표 여행지로 9경이 있는데, 먼저 '도리산 전망대'를 추천한다. 이곳을 찾은 여행객에게 '도리도 리'하며 섬들을 마음에 담으시라 주문하는데, 여기서 '도리도리'는 평소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즐겨 하는 것으로, 주변을 잘 살펴 다니길 바라는 애뜻한 정(情)이 숨어있다. 또 도리산에는 희귀 식물이 있는데, 바로 '조도만 두나무'다. 나무 열매가 꼭 만두처럼 생겨서 학명으로 조도만두나무라는 이름이 등재됐다. 다음으로 하조도 '돈대산'은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인데, 멀리서 보면 산 정상에 사람 주먹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눈에 든다. 산봉우리가 모두 다섯 개인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보이는 즐거움이 있다. 면소재지에서는 주먹, 조도대교에서는 임산부가 누워있는 모습, 도리산 전망대에서는 새끼 손가락처럼 보인다. 1909년 지어져 불을 밝힌 하조도 등대는 올해로 꼬박 115년째 서 있다. 등대 외벽은 보통 하얗게 칠하는데, 선장이 나 선원 눈에 잘 들어야 하니까. 여기 등탑 꼭대기를 등롱이라 부르는데 백 리, 즉 40km를 밝힌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절을 생각하면 등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조도 등대 뒤로는 만물상 바위와 함께 사자 바위, 독수리 바위 등 독특한 형상을 띠는 기암괴석이 많다. 주민들은 이곳을 '작은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화가나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그런데 안전 시설이 없어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행객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데크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다. 조도에 숨겨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노력이 필요하다.

### Q3 상·하조도에 조도대교와 나배대교가 있던데?

**A3** 조도면에는 섬과 섬을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조도대교와 나배대교이다. 먼저 조도대교는 상조도와 하조도를 잇는 교량으로 1997년 건설됐다. 다리를 건너면서 중간 지점을 보면 온통 하늘만 보이는 게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는 다리'라고 이름 붙였다. 관광객들이 정말 천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올 때가 있는데 하조도에서 상조도로 가는 방향 오른쪽에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인도교가 있어 안내한다. 나배대교는 2022년 개통된 다리로 하조도와 나배도를 잇는다. '나배'라는 지명은 섬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붙여졌다. 아직 여행 명소가 많지 않지만, 민속문화유산인 '조도뫼배노래'가 있다. 다리를 건너 나배도로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게 나배분교다. 예전에는 3학년 분교였는데, 경관이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섬 여기저기 다리가 놓이면서 지역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상조도 섬등포에 드나들던 여객선이 사라졌지만, 차량으로 언제든지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섬 주민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훌륭한 징검다리가 됐다.

### Q4 섬에서 지내며 보람을 느낀 일이나 기억이 있다면?

**A4** 옛날에 목포에서 몇 개월간 문해교실 강사 교육을 받고 조도에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 교실 수업을 받으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본인이 어디 있는지 판을 보고 위치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한 분이 조도 등대에 있는데 건물 생김새만 보고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는데, 어른이 스스로 위치를 알려 왔다는 것이다. 한글을 떴 학생들에게 영어 알파벳도 가르쳐 드렸다. 'A'는 빨래집개처럼 생긴 것, 'B'는 형수님들이 차고 다니는 브라자 얹어놓은 모양, 'D'는 반달 모양, 'H'는 사다리 모양.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고 익숙한 사물이나 모양으로 설명하니 이해가 빨랐다. 반복해서 알려드렸더니 어느 순간 깨우치시더라. 조도 어른 한 분이 대전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좌석이 영어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알파벳 공부를 해서 수월하게 찾아 앉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또 다른 분은 딸과 예약장 피로연장에 갔는데, 식권에 적힌 번호를 찾아 지정석에 앉았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딸이 "엄마, 어떻게 여기로 찾아왔소?"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한글학교에서 영어랑 배웠어. 여가 내 자리 맞지 않냐."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분도 밤낮으로 글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언젠가 진도군에서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는데, 한 학생이 대상을 받아오기도 했다. 글씨 필체가 대학 졸업한 학생보다 좋았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쌓이니 뿌듯하더라.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 여기서 섬이 많은 도(道)는 전라남도, 군(郡) 단위로는 신안군, 단일 면(面)으로는 조도.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관광객을 만나는데, 배우는 점도 많고, 느낀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서 하니 행복하다.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하조도 신전마을 살림꾼 문석문 이장

### Q1 하조도 신전마을을 소개한다면?

**A1** 신전마을은 하조도에서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지금 마을 가구 수는 51호에 주민이 78명 정도다. 예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육지 농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바다 쪽에서 소득이 월등히 높아 약 90% 정도가 어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최근에는 청년들이 귀어·귀촌해서 툇과 전복양식업에 도전하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많아져서 귀어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바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날씨와 환경인데, 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류 소통이 원활하고, 냉수대가 흘러 양식하기에 좋다. 이런 점은 전복이나 툇과 같은 지역 상품 가치나 맛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누구나 섬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싶다.

### Q2 신전마을을 대표하는 여행 명소가 있다면?

**A2** 마을 앞에 있는 신전해수욕장이다. 옛날에는 넓고 단단한 백사장이 있어서 여름 피서지로 좋았다.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빠지면 눈에 보이는 모래밭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그런데 기후 변화 영향 탓인지 지금은 죄다 휩쓸려 가버렸다. 그나마 계절마다 부는 바람에 따라서 모래 유실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여름에는 동쪽 바람 영향으로 모래가 유실됐다가 겨울 북풍으로 해변에 퇴적되곤 한다. 그래도 다행인건 육지보다는 섬 지역에서 여행 명소를 개발하거나 문화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객들이 조도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섬이 지닌 가치를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명소는 여행지라고 보기 어렵지만, 낚시가 잘 되는 마을 해안이다.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조도로 제철 낚시를 위해 찾는다.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즐기는 포인트 낚시가 인기다. 다만 철마다 섬을 찾는 어종이 다양하니까 물고기가 지닌 습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름에는 농어, 가을에는 삼치, 겨울에는 돔이 주요 어종이다. 낚시꾼은 2, 3일 정도 머무르면서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를 잡아도 굵은 녀석으로 잡으니 손맛 좋은 낚시 명소로 소문났다.

### Q3 섬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A3** 조도에서 툇 양식 기술이 보급된 건 1980년대 후반쯤이었다. 그 시절엔 양식 과정 모두가 수작업이라서 힘들었다. 이 수작업이란 건 바다에서 자연산 툇을 뜯어 실로 묶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가느다란 줄에 묶어서 채비하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바다 양식장에 있는 원줄에 묶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으니 얼마나 고단했겠나. 그런데 언젠가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 섬에 들어온 조카가 운전기를 연구해 작업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하는 기계를 최초로 개발했다. 그 덕분에 고생은 덜면서 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었다. 이전에는 마을 아주머니 열 명이 붙어서 작업해야 가 까스로 마칠 일을 기계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조도면 신전마을에서 발명왕이 탄생했다. 그렇게 발명해서 툇 양식업에 종사하는 다른 어민들에게도 보급했다. 그러다 조도면과 이웃하는 완도군과 여수시, 진도군 등지에 있던 어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기술을 배워갔다. 예나 지금이나 완도군이나 여수시에는 수산고등학교와 수산전문대학이 있어 유명하다. 수산 분야에 관한 선진 기술이나 설비가 들어오는 경로는 여수에서 완도를 거쳐 진도와 조도로 들어오는 게 공식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으니 주민들이 느낀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널리 쓰이더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Q4 상·하조도가 툇 양식으로 유명하던데?

**A4** 조도는 예전부터 전체 툇 종자 생산량의 상당량을 생산해 온 역사가 있어 인접 지역 어민들이 여전히 섬을 찾는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씨앗 생산이 조금씩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조도가 여전히 앞선다. 양식 기술이 보급되던 초창기에는 섬 해안이나 갯바위에 자생하는 툇을 채취해서 수작업을 한 뒤 어장으로 옮겨와 기르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양식장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길러 수확·판매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채취 횟수나 기간도 상당히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종자와 완제품을 생산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로 일거양득(一舉兩得)이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을까? 사시사철 어구나 밭줄을 양식장에 뒤버리니 오염 정도가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바닷물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법이다. 그래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어장 정화도 하고, 양식 시설도 뺀다가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바다도 숨을 쉬지 않을까 싶다. 어릴 적 보리밥만 먹고 살던 시절엔 식량이 부족하니까 바다에서 나는 툇을 넣어밥을 짓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요즘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먹는 툇밥과 다를 게 없었다. 한국인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광고를 보면서 우리 조도 주민들은 '툇밥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이런 명성 덕분에인지 서울·수도권에서도 상품 구입을 희망하는 문의가 꽤 많이 있다.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다. 또 원초 생산량이 많은 어가에서는 1차 가공 과정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한다. 앞으로 조도 해산물과 한국 수산 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길 기대한다.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상·하조도 투어 가이드

항차	진도 → 조도(창유)		운항선박	조도(창유) → 진도		운항선박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30	08:10	한림페리II호	07:20	07:50	새섬두레호
2	08:20	08:50	새섬두레호	08:20	09:00	한림페리II호
3	09:50	10:30	한림페리II호	09:30	10:00	새섬두레호
4	10:30	11:00	새섬두레호	11:20	11:50	새섬두레호
5	12:10	12:40	새섬두레호	14:30	15:00	새섬두레호
6	15:20	15:50	새섬두레호	16:00	16:40	한림페리II호
7	17:00	17:40	한림페리II호	17:00	17:30	새섬두레호
8	18:00	18:30	새섬두레호	18:00	18:30	한림페리II호

※ 상기 시간은 조석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편도 30~40분

**진도항**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창유항**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897

**진도항 매표소** (새섬) 061-544-5353 (한림) 061-544-0833  
**창유항 매표소** (새섬) 061-542-3771 (한림) 061-544-0020

**성인 1인(편도) 4,200원**  
**승용차 기준(편도) 19,000원**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 진도 상·하조도 숙박업소

연번	상호명	유형	주소	연락처
1	버드아일랜드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길 1-4	061-542-5102
2	조도쉼터	민박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길 37-2	010-9286-7537
3	등대길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조도등대길 101	061-542-9336
4	산수장	여관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13-3	010-8837-3366
5	신비장	여관	진도군 조도면 창유2길 6	010-9797-5267
6	이행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19-4	061-542-5154
7	바다향기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신전길 53-2	010-5068-6780
8	송애정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신전길 53	010-6733-2488
9	신흥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144-4	061-542-5003
10	새섬나드리민박	민박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950-2	010-9024-1120

### 진도 상·하조도 식당

연번	상호명	주소	연락처
1	다도해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3	061-542-7617
2	삼거리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36-1	061-542-5050
3	촌동네순금이네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21	061-542-9966
4	소문장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19-3	061-542-8880
5	산수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13-3	061-542-2445
6	이행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19-4	061-542-5154
7	윤희네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15	061-542-8227
8	장미식당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659-2	061-542-5075
9	소리통닭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30-16	061-542-5181
10	라온카페	진도군 조도면 창유길 35	010-7417-5884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조도면소재지에 숨은 이색 점빵 마실

1

### 팔팔상회

조도면소재지에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슈퍼마켓 등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레트로 감성을 깨우는 페인팅 글씨가 돋보이는 상점이 있어 걸음을 멈춘다. 바로 '팔팔상회'다. 주인이 손수 가꾼 분재 화분과 섬 곳곳으로 나아갈 든든한 천리마인 오토바이, 깨끗한 거리를 위해 쓰는 빗자루와 청소도구, 길손을 위한 의자까지, 소박한 소품들로 고즈넉한 섬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20  
전화번호 061-542-5088



2

### 촌동네 순금이네

현장취재를 하던 중 배고픔이 밀려와 면소재지에 늘어난 식당가를 찾았다가 발견한 곳, '촌동네 순금이네' 식당이다. '촌동네'란 단어를 들어본 게 얼마만일까? 어쩐지 푸근한 느낌으로 충만해졌다. 식당 앞에 서니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점심 메뉴를 고를 수 있겠다 싶었다. 닭백숙과 물회, 오삼불고기, 생선 지리탕, 장어탕, 심지어 돈까스까지.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나는 온갖 식재료를 만날 수 있는 요리들이 시선을 이끌었다.

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21  
전화번호 061-542-7125



4

### 조도택시

면소재지 상점가를 걷던 길, 창고 외벽에 그려진 포니 택시 벽화와 함께 조도택시라는 입간판이 눈에 든다. 자동차가 귀했던 예전만 하더라도 택시는 섬 곳곳에 겨우 조성된 비포장도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천리마(千里馬)였다. 섬 주민들은 보통 여객선이 닿는 항·포구나 읍·면소재지에 대기 중인 택시를 잡아타거나 미리 전화해서 집 앞에 불러들이기도 했다. 현재 조도택시회사에 등록된 차량은 한 대뿐이지만, SUV 차종으로,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전화만 주시라. 손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33-1  
전화번호 061-542-5071



3

### 다있소

팔팔상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이 문을 연 점빵이 있으니 이름하여 '다있소'다. 다양한 공산품을 파는 유명 체인 마켓과 상호가 비슷하지만,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남도 사투리 느낌이 물씬 풍긴다. '조도대표 생활용품 스토어'라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를 서두에 넣었다. 없는 것빼고 다 있는 읍내 장터에 버금가는 기세가 대단해 보인다. 생활잡화와 행사용품, 작업자재, 의류뿐만 아니라 중고용품도 취급한다. 개업을 축하하는 섬 주민들이 보낸 화분 몇 개가 문 앞을 지키는 모습에 시선을 던지니 진한 여운이 남는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2길 6  
전화번호 010-3328-0456



상하조도 여행 명소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_ 상조도 도리산 전망대** 조도 9경에서 아홉 번째 명소인 '도리산 전망대'는 상조도 도리산(해발 210m) 정상에 있는 곳으로, 다도해에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도리산 전망대로 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첫째는 도리산 탐방로를 따라 걸어서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다. 등산 코스 중간중간에 약수터나 쉼터, 정자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다. 두 번째는 전망대에 이르는 도로를 통해 차량으로 오르는 방법이다. 산 정상에 이르면 데크로 조성된 전망대에 이를 수 있는데, 조도면에 속한 작은섬은 물론 신안군 신의도와 하의도 등지를 관망할 수 있다. 상·하조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조도대교와 나배대교를 비롯하여 섬 곳곳에 자리한 섬마을이 눈에 든다. 특히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추어 도리산 전망대를 찾으면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찾아가는 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로 1401-170



**2\_ 하조도 등대** 하조도 등대는 섬에서 동북쪽 끝자락에 있다. 조류가 빠른 진도와 하조도 사이로 운항하는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장죽수도(長竹水道)의 안전한 뱃길 안내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등대 불빛은 100리까지 도달하는데, 이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0km다. 하조도 등대는 1909년 2월 건립되어 올해로 115년에 이르렀다. 등대 주변에는 멋진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있는데, 만물상바위를 비롯하여 사자바위, 독수리 바위 등 다양한 형상을 지닌 명물이 분포한다.

**찾아가는 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등대길 429



**3\_ 하조도 불등 바다샘** '지근두골', '한옥골', '뒷골', '대목골', '작은 대목골', '작은 옥골' 등 여섯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하조도 옥동(陸洞)마을은 예로부터 '골짜기가 깊어 물이 많다'는 뜻을 지녀 '여섯골'로도 불렸다. 1989년 옥동마을 지근두골에 조도 상수원이 준공되기 전까지 섬사람들이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 등으로 써왔다. 불등 바다샘은 마을과 등진 신금산(해발 237m)에서 내려온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고여 용천수 형태로 물웅덩이를 이룬다. 샘은 만조시에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간조 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무더운 여름철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 지금은 수원지가 생겨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지만, 자연이 사랑을 모아 전해준다고 하여 '사랑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326-3(옥동불등공원 건너편)



**4\_ 하조도 신전해수욕장** 신전해수욕장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인접한 해안선 경관이 뛰어나 여름 피서객이나 계절 낚시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다. 특히 해수욕장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 여행지로도 좋다. 해수욕장이 있는 하조도 신전마을에서는 특산물로 자연산 돌미역과, 멸치, 톳, 전복 등이 생산되는데, 사계절 내내 제철 어종들이 서식하여 싱싱한 활어 또한 잘 잡힌다. 아울러 야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간이 화장실, 샤워장 등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해수욕장 건너편에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관매도를 비롯하여 방야섬, 청등도, 독거도 등 멋진 섬들이 한 눈에 든다.

**찾아가는 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등대길 429

#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월 섬 주요 소식



1

## 목포 달리도, 섬 주민 복지 시범사업 “비대면 섬 닥터” 시연회 열려



목포 달리도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섬 어촌 지역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배송, 진료 예약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료 전 통진장비를 설치하고 사전에 의사 문진을 신청, 달리도 어르신들의 신체 상황과 건강 상태가 나타난 기록지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의사에게 전달한 후 문진 순서대로 3~5분간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는 순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첫 시연회라서 진료가 끝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추후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2

##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 프로그램 안내



섬에서, 바다와 고즈넉한 풍경과 만나는 힐링 타임.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사실! 해양치유센터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1층에 조성된 테라피실을 이용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1층 테라피 체험을 포함, 2층 테라피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하여 즐길 수 있는데요. 이밖에 해양문화·해양기후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건강과 힐링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의 경우 성인 1명을 기준으로 기본 프로그램이 36,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125,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완도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 3월 4일~3월 19일까지 임시 휴관/3월 20일부터 재개관)

이용 문의 061-550-7675~6

시설 안내 <https://www.wando.go.kr/healing>

3

## 가고 싶은 섬 기본계획 심의 전라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회 개최



전라남도는 2023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목포 외달도와 여수 대항간도·송도, 신안 고이도 등 4곳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계획은 가고 싶은 섬 선정 후 여러차례 현장방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 심의가 2024년 2월 26일 전라남도청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형태로 이뤄진 심의에서는 생태, 산림·조경, 마을만들기, 문화·관광 홍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계획 승인 이후 가고 싶은 섬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운영 단체 선정



전남 섬이 지닌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위해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운영 단체가 선정되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누리집을 통해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자체 공모로 운영 단체 모집을 진행하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워크캠프기구를 선정했는데요.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거점 섬을 중심으로 20인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을 개선하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기업·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 참가하는 워크캠프 청년들은 캠프 개최를 예정한 섬에 방문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남 섬을 찾는 청년들이 어떤 활동으로 빛날지 기대됩니다.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